



●광주극장 3-4월 개봉작 소개

‘미학의 정점’ 독립영화, 묘미를 마주하다

감각적·도발적 몽타주 담은 비주얼 서스펜스 작품부터 장르 혁신가 스즈키 세이준의 ‘다이쇼 로망’ 3부작까지

봄날을 맞아 광주극장이 독창적인 미학을 담고 있는 독립영화 상영작들을 소개한다.

먼저 오는 27일 제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작품 ‘악은 죽게 하지 않는다’가 개봉한다. 자연과 가까이 살고 있는 부녀의 작은 마을에 갑작스레 글램핑장 건설을 위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드라이브 마이카’ 음악 감독이었던 이시바시 에이코가 라이브 퍼포먼스용 영상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에게 의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다음달 3일에는 팅속 유물을 감지하

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도굴꾼 아르투가 잃어버린 연인 베니아미나를 찾아 헤매는 기묘한 모험을 다룬 드라마 ‘키메라’가 스크린에 오른다. 2023년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여 9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으로, ‘더 원더스’(2014)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고 ‘행복한 라짜로’(2018)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의 신작이다.

같은 날 제7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으로 선정된 영화 ‘라스트 썬머’가 관객들과 만난다.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들 ‘데오’와 금지된 사랑에 빠진

중년 여성 ‘안느’의 위험한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로망스’, ‘팻 걸’, ‘미스터리스’ 등 에로티시즘을 탐구하는 과격적인 소재의 영화로 씨네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트린느 브레야 감독의 신작이다. 개인의 욕망과 금기는 물론 가족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채로운 통찰을 전하며 카이에 뒤 시네마 2023년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본 영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미학을 선보인 거장 스즈키 세이준을 조명하며 그의 작품 중 탐미주의적 미학이 정점에 달했다고 평가되는 ‘다이쇼 로망’ 3부작도 오는 28일부터 4월10일까지 상영된다. 이 3부작은 1960-1960년대 그의 영화 모토였던 전복성보다는 낭만주의와 퇴폐적인 분위기가 절제된 성숙한 영상미가 빛나는 그의 1980년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스즈

키 세이준의 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으며, 그를 일본을 대표하는 비주얼리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서보형 감독의 비주얼 서스펜스 작품 ‘벗어날 탈’도 지난 15일부터 상영 중이다. 죽기 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영목’과 작품을 위해 영감을 기다리는 ‘지우’ 앞에 드러난 미스터리한 번뇌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다. 영화는 두 인물의 번뇌와 고뇌를 강렬한 색감과 미장센으로 표현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의 교차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오는 29일 오후 3시에는 영화를 연출한 서 감독과 임호준·위지원 배우를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GV) 시간도 갖는다.

한편 상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224-5888. /최영진 기자

성평등·돌봄 민주주의의 시민 공감대 높인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중점사업

(재)광주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돌봄 민주주의의 확대와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선다.

재단은 지난 19일 언론홍보 강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 부서별 주요 연구·사업 소개와 지난해 우수사업, 올해 신규사업 등을 공유했다.

먼저 재단은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2실 3팀 1단에서 3실 1단으로 대부처화·단순화시켰다. 이번 개편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광주 성평등에 기여하는 재단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광주 시책과 함께 하는 선제적인 혁신의 첫걸음으로 추진됐다.

성평등 광주를 위해 남성 통합적 성평등 정책 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모·부성제 보호 제도 활용실태조사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다.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통해 성차별 인식개선 및 성인인지각수성 향상, 인권 감수성 교육을 이어가며 북가페 은새암에서는 따뜻한 글쓰기 경험으로 일상에서 활기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을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도 운영한다.

전문 강사가 교육 현장에 찾아가는 젠더폭력예방교육도 사례를 활용한 맞춤형 핵심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돼 시민들을 찾는다.

지난해부터 동구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

는 가운데, 이웃집 긴급 돌봄서비스 사업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양육자와 이웃이 돌봄의 주체로서 주도하는 육아풀앗이 활동을 통해 상호간 자녀 일상·긴급·주말 돌봄 등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여성 생애기술사 3편 ‘여성 가사노동자 편’을 발간할 예정이며 광주 근대여성의 시대정신과 진취적인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광주여성 두릅길’ 3코스를 주제로 한 전시도 준비 중이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성인지 시정과 연계한 정책과 시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사업들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장희구 박사 (544)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詠山(영산) - 일중 김충현
遠山如高士 長在白雲間(원산여고사 장재백운간)
自憐城裏客 可望不可攀(자련성리객 가망부가반)
먼데산이 마치 높은 선비와 같고
긴긴 시간 백운 속에 있다 하는데
불쌍타 산은 볼 수 있되 오르지 못하니.

산은 볼 수 있을지언정 정녕 오르지 못했으니



산은 우람해서 좋다. 산은 묵직해서 좋고 큰 희망과 포부를 안겨 줘서 좋다. 산 사람들은 산이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산의 의미가 부여된단다. 일주일이 멀다 않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산의 예찬론을 펼친다. 어디 산의 예찬론에만 그치겠는가. 산을 읊어 시상의 열개를 짜 맞추기도 했다. 백운으

로 허리를 감는 산의 의미를 부여한다. ‘먼 산은 마치 높은 선비와 같아서, 오랫동안 백운 속에 있는 것만 같다’면서 읊었던 시한수를 번안해 본다.

‘산은 볼 수 있을지언정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詠山)로 제목을 붙여 본 오언절구다.

작가는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 1921-2006)이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우리 글씨 쓰는 법’을 저술한 것을 시작으로 평생 한글 고체를 연구해 이른바 ‘일중체’를 만들어 냈던 인물로 널리 알려진다. 하대(下待)를 받던 한글 서체에 힘을 불어넣고 한민족 고유의 글씨체를 확립했다는 평을 받았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먼 산이 마치 높은 선비와 같아서 / 오랫동안 백운 속에 있는 것만 같구나 // 불쌍하기 그지없구나! 성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 비록 산은 볼 수 있을지언정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라는 시상이

다.

위 시제는 ‘먼 곳에 있는 산을 읊다’로 번역된다. 시인은 창가에서 먼 산을 보면서 시를 읊었음을 직감하게 된다. 산을 오르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멀리 있다면 동경의 대상은 필자연정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산이라 할 수는 없다. 한글 서예의 극치를 이루면서 우리글씨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시인이고 보면, 시적인 흐름이나 시상의 뜻을 가히 달관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을 받을만하다.

시인의 시상은 범상해 보이지 않는다. 첫 구부터 은유적인 색깔을 칠하지는 못했지만, 직유적인 표현에 의해 비유법을 덧칠하고 있음을 본다. 멀리 있는 산이 마치 높은 선비와 같아서 오랫동안 산이 흰 구름 속에 있다고 했다. 한 선비라기보다는 백운 속에 숨은 고고한 신선의 한 기상을 이끌어 냈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겠겠다.

화자는 멀리 있는 정경에 힘을 싣더니만 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의 시상 그림을 그려냈다. 참으로 ‘불쌍하구나!’ 성안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산은 볼 수 있을지언정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 라고 했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遠山: 먼 산. 如: ~과 같다. 高士: 높은 선비. 長: 오랫동안. 在: ~이 있다. 白雲: 백운. 흰 구름. 間: 사이. // 自憐: 스스로 불쌍하다. 城裏客: 성안의 사람들. 곧 서울의 사람들. [客]은 여러 무리들을 지칭함. 可望: 가히 바라보다. 바라 볼 수 있다. 不可攀: 오를 수는 없다. 오르지 못한다.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